

정치라는 웃을 입은 신 고질라

2015102883 일본어학과
이유경

2018년 3월, 큐슈 지방의 후쿠오카로 교환학생을 갔을 당시, 후쿠오카에는 어디를 가든 고질라로 도배가 되어있었다. ‘ゴジラ博多、上陸’라는 타이틀 아래, 후쿠오카 타워, 캐널시티, 지하철역, 버스 등 고질라가 붙여져 있지 않는 곳을 찾는 것이 더 쉬울 정도였다. 나 또한 그곳의 사람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고질라 영화 봐야만했고, 그렇게 안노 히데아키의 ‘신 고질라(シン・ゴジラ)’를 보게 되었다. 처음에 이 영화를 봤을 때는 그저 판타지 괴수 영화라고만 생각했었다. 우리나라에 소개된 신 고질라의 프레임 역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정체불명의 괴수 '고질라'를 상대로 불가능한 희망을 찾는 사람들의 최후 반격을 담은 대재앙 블록버스터’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알면 알 수록 이 영화는 철저하게 사회 비판을 담은 영화였다. 보통의 괴수 영화라면 괴물 그리고 괴물과 사투하는 사람이 중심으로 그려지는데, 신 고질라에서는 괴물인 고질라와 또 그것과 싸우는 사람들, 그로인해 피해를 입거나 죽게 되는 사람들 역시 매우 조금밖에 그려지지 않는다. 이 영화의 대부분은 정부가 고질라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중점적으로 그려내며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가 재앙을 막아야 한다는 목적보다는 그 형식을 중요시 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결국 일본 정부의 권위적인 모습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비의 소재로서 등장하는 주인공의 팀인 야구치 팀은 반대로 수평적 조직으로서 보다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여 고질라를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즉 이를 통해 일본 사회가 관료주의 병폐를 벗어나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영화는 일본 사회의 전후 사상을 여실히 드러내기도 한다. 작품은 웃음기 없는 냉소주의로 일관되며, 주인공 누구의 열정이 휴머니즘을 위한 것인지, 성공 지향의 야심인지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강력한 무기를 동원한 자위대가 출동하여 고질라와 사투를 벌이는 모습은 소위 평화 헌법이라 불리는 일본의 헌법 9조 개정, 군국주의의 부활이라는 문제를 상기시키기에는 충분해 보인다. 실제로 감독 안노 히데아키는 자위대의 협조를 받아 방대한 스케일의 액션신을 연출하였다. 그는 인터뷰 중 ‘고질라가 존재하는 SF의 세계는 꿈과 바램만이 아닌 현실의 캐리커처이고 풍자이자, 현실이 거울에 비춰진 모습이기도 합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실제 자위대까지 동원한 감독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이 장면은 군국주의의 부활을 미심쩍게 바라보는 동아시아 관객에게 심리적 저항감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불안감은 고질라라는 소재 자체에서도 느낄 수 있다. 고질라는 핵무기로 인한 방사능으로 일깨워진 괴물이라는 측면에서 반전의 아이콘인 한편, 미국에 대한 피해의식을 상기시키기도 하므로 패전과 굴욕의 아이콘이기도 하다. 파괴되었기에 생산해야 한다. 전후 일본의 슬로건은 전쟁극복, 국민총화, 경제부흥에 집중됐다. 이러한 전후 슬로건은 상업영화에 까지 퍼지게 된다. 생산을 위해 파괴한다. 반전의 주제를 전유한 상업영화의 도착적 욕망 속에서 반전은 충분히 전쟁의 욕망으로 번역될 수 있는 것이다.

여러 자료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결과 단순히 일본의 CG 기술이나 유명 배우 대거 등장 등의 점들을 칭찬하면서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영화는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또한 영화나 책, 작품을 볼 때는 물론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나 목적이 무엇인지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